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임진강 생태탐방로' 개방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9.1킬로미터 구간이 44년 만에 개방됩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제1사단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내년 1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개방한 뒤 방문객 수와 탐방횟수를 늘리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탐방로 방문신청은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14.4 X 5.2 cm

임진강 탐방로 44년 만에 개방...다음 달부터 시범운영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임진각~올곡습지공원 9.1Km 구간이 44년 만에 일반에 개방됩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1보병사단은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임진강 생태탐방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시범운영에 앞서 어제(28일)부터 오늘까지 생태탐방로의 CCTV, 방송장비, 조명장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마치면 토.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주중 1회를 개방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개방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9.1 X 8.9 cm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44년 만에 개방

道·파주시·육군 1사단 협약 내년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임진각~울곡습지공원 9.1km 구간이 4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1보병사단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임진강 생태탐방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나서 차례대로 개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진강 생태탐방로'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울곡습지공원에 이르는 9.1km 구간으로 지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이와 관련 도와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임진강~임진나루 7.9km 구간에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CCTV 및 펜스 설치 등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했다.

또 지난 3월 도와 시, 1보병사단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임진나루~울곡습지공원 1.2km 구간을 추가 조성했으며 이 구간에 대한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도와 시, 1보병사단은 생태탐방로의 CCTV, 방송장비, 조명 장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토·일요일, 공휴일과 주중 1차례 개방하고 이후 차례대로 개방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11.2 X 8.4 cm

도의회, DMZ 보존·활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지사 종합시책 수립 등 담아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

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등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

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DMZ 일원과 관련한 포럼 등 국내외 교류, 생태계 보존, 안보체험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DMZ 일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초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17.8 X 4.4 cm

임진강 생태탐방로 44년 만에 개방

내년 1월부터 석달간 시범운영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임진각~울곡습지공원 9.1km 구간이 44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임진강 생태 탐방로'를 시범 운영한 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진강 생태 탐방로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울곡 습지공원에 이르는 9.1km 구간으로, 지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돼 왔다.

도는 파주시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임진각~임진나루 7.9km 구간에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 및 펜스 설치 등 군 경계력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3월 파주시, 1보병사단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진나루~울곡습지공원 1.2km 구간을 추가 조성했다.

또 시범 운영에 앞서 지난 28부터 30일까지 생태 탐방로의 폐쇄회로(CC)TV, 방송장비, 조명장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토·일요일과 공휴일, 주중 1일 개방할 예정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개방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9.8 X 10.3 cm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44년 만에 개방

임진각-울곡습지공원 9.1km ... 주말·공휴일·주중 1회 계획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거쳐 순차적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임진각~울곡 습지공원 9.1km 구간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지 44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1보병사단은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돼 온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2010년부터 임진각~임진나루 7.9km 구간에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CCTV 및 펜스 설치

등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시작해 지난 3월 1보병사단과 함께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진나루~울곡습지공원 1.2km 구간을 추가 조성하는 등 이 구간에 대한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이들 3개 기관은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앞서 28~30일까지 생태탐방로의 CCTV, 방송장비, 조명장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거쳐 시범운영과정을 마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주중 1회 개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방횟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는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내 관광코

스 개발에 본격 나서 임진강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경재 도 DMZ정책담당관은 "DMZ는 생태적·문화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가진 보고"라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경기북부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경기도, 1월부터 임진강 탐방로 개방...관광활성화 기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9.1Km 구간이 44년 만에 개방된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제1사단은 지난 27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내년 1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개방한 뒤 방문객 수와 탐방횟수를 늘려나간다는 내용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과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생태탐방로는 내년 1월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하루 1회(300명 제한) 개방된다.

2~3월에는 같은 기간 하루 2회 개방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군과 협의해 개방횟수와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울곡 습지공원에 이르는 9.1km 구간으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도는 2010년부터 임진각~임진나루 7.9km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2013년 마을축제 때 한 차례 임시개방했다. 이후 1사단과 협의를 벌여 최근 임진나루~울곡습지공원 1.2km 구간의 탐방로를 추가 조성했다.

관광객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철책 너머로 6·25전쟁 이후 발길이 닿지 않은 초평도와 수변 생태, 높이 10m로 400m가량 이어진 주상절리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방되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경기북부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탐방로 방문 신청은 경기관광공사(<http://ggtour.or.kr>)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임진각 생태탐방로 부스에서 할 수 있다.

nsh@yna.co.kr